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교육실습생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진형란* · 유태명**1)

경상대학교 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Narrative Inquiry on Student Teacher Searching for Identity as a Teacher

Jin, Hyung Ran* · Yoo, Tae Myung**1)

*Graduate School,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tudent teaching is equivalent to an egg just before oviposition, There is a growing acting voice that teaching profession is not necessarily required as the years go by. I developed a process that 55 student teachers search for their identity as a teacher during four-week student teaching program according to Clandinin and Connelly(2000)'s narrative inquiry. The procedure consisted of three stages such as access to the field, field text writing, and research text writing. The student teachers wrote journals by week to search for their identity as a teacher with a focus on what they observed in the field and what they were motivated by teachers and students. Free and truthful 220 stories conducted in a student teaching online cafe were collected as a field text. And the research text was reliving and retelling through poetic writing on each week's themes of exploration, growth, reflection, and pledge to complete the narrative inquiry. Student teachers, an absolute majority, including home economics student teachers aimed for the teaching profession and waited for their hatching.

Key words: 교육실습생(student teacher), 정체성(identity), 내러티브 탐구(narrative inquiry), 시적 글쓰기(poetic writing)

1) 교신저자: Yoo, Tae Myung, 551 Jinjudaero,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Republic of Korea
Tel: 055-772-2241, Fax: 055-772-2249, E-mail: franco@gnu.ac.kr

I. 서론

교육실습은 산란(産卵) 직전의 알이다. 현장은 부화기로써 교육실습생들에게는 두려우면서 설레는 장이다. 최근 사범대 교육실습생들은 교사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고 교육실습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과거 개인적인 체험과 교육실습생을 지도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교육실습생들은 교육실습을 통해 교사 교육 기관에서 경험하지 못한 교사로서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형성하여 교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된다. 교육실습생으로 참여했던 자신의 경험을 연구한 Kwon과 Jo(2013) 또한 교육실습 기간 중 교직관을 재정립하고 교직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전국의 사범대학들은 4주 동안을 실습 기간으로 정하여 4학년 기간 중 이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있다. 이는 교육실습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학습과정이라고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교육학자들은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Hur, 2007).

교육실습과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대상 학교 급별 및 연구대상에 따라서 유치원(Yang, 2013), 초등(Lee, 2006; Kim, 2012), 중등(Jo, 2004; Kim, 2005; Choi, 2009; Ok, 2009; B. Kim, 2011; Jung, 2013)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또 중등의 경우는 체육(Choi, 2009)과 사회(Ok, 2009) 등 각 교과별로 구분지어 연구되기도 했다. 그리고 교육실습생을 ‘예비교사’, ‘교생’, ‘예비초등교사’, ‘예비특수교사’, ‘중등체육예비교사’ 등 교과와 학교 급별을 연결 지어 다양하게 명명되어 연구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명칭들을 ‘교육실습생’으로 통칭하였다.

교육실습과 관련된 질적 선행 연구들(Jo, 2004; Kim, 2005; Lee, 2006; Hur, 2007; Choi, 2009; Ok, 2009; B. Kim, 2011; Park, 2012; Yang, 2013; Jung, 2013; Kwon & Jo, 2013)은 질적 사례를 통해서 교육실습 경험과 의미를 밝히고 교육실습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대부분은 외부인으로 지도 교육실습생에 대한 연구였다. 이 경우는 교육실습생의 성찰적 일기나 실습일지에 의존하거나 심층면담 자료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교육실

습생의 입장을 주로 분석하는 데 그쳤다. Ok(2009)은 교육실습생의 일지를 기초자료로 하여 참여관찰과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실습생과 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으나 지도교사의 관점을 살펴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Kwon과 Jo(2013)의 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현장에서 교육실습 참여자로서 자기연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는데, 연구자의 일 회 경험을 토대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실습의 역사적인 종적 맥락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했지만 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Ok(2009)이 발견한 바대로 지도교사의 지도 성향은 교육실습생의 교육실습 과정과 수업준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교육실습생의 교직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교육실습 과정은 교육실습생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필수적인 과정으로 그 과정에서 지도교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교육실습생과 지도교사의 상호작용을 지도교사의 눈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더불어 교육실습생과 교육실습생 간의 상호작용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더 나아가 교육실습생과 실습학교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역시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표본에 의지하여 통계적 분석을 토대로 정량화하는 양적 연구보다 연구자가 교육실습 현장에서 체험을 다루는 질적 연구를 시도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의 선행연구로부터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질적 연구자가 참여자의 체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참여자가 보여주는 관점에 의지해야 하는데, 4주라는 기간은 짧고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연구자 스스로나 외부에서 연구를 진행할 경우 미처 드러나지 않는 실체와 맥락에는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교육실습생들을 해마다 만나왔다. 그리고 다양한 교과의 교육실습생을 이끄는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교육실습생들의 삶과 비교적 많이 동떨어져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나는 교육실습 학교에서의 교육실습 지도교사 관점에서 교육실습생들의 4주간의 경험을 교육실습생 자신, 지도교사와의 상호작용, 다른 교육실습생과의 상호작용의 측면에 중점을 두고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내러티브 탐구를 설명한 바대로 4주간의 경험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다시 이야기하며(retelling) 내러티브 탐구를 시작하였다.

나의 근무 현장은 사범대학부설학교이다. 교육실습이 주요 설립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마다 50명 내외의 교육실습생들이 본교에서 현장체험을 해 오고 있다. 나는 이곳에서 8년 동안 교육실습생을 지도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교육실습부장을 담당하면서 교육실습생에 더 깊이 다가가서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읽을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사범대학 학생에게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것이 당연한 지향점이었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졸업 후 교사라는 직업을 갖는 것이 필수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Kim(2012)은 교육실습은 단순히 수업기술이나 실무를 익히는 수준에서 벗어나 교육실습생이 교사를 자신의 직업으로 받아들여 적응해 가는 과정이고, 교육실습이 교육실습생들의 교직사회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교육실습생은 한 교실의 손님이다. 손님으로서 따라야 할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규칙들이 있다. 손님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교사의 의미를 실천해 보려 할 때에도 지도교사가 가진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손님은 교실의 영구적 구성원이 아니다. 언젠가는 떠날 것이고 지도교사는 그 학교와 그 학군에서 계속 가르칠 것이다. 지도교사마다 교육실습생에게 교실 공간과 권한을 허용하는 방식이 다르며 의사소통의 방식도 다 다르다(Phillips & Carr, 2006).

내러티브는 자서전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살아가기, 이야기하기, 다시 이야기하기, 다시 살아가기 등은 우리 삶의 특징을 나타낸다. 우리의 연구 관심은 자신의 내러티브에서 나오고 내러티브 탐구의 줄거리를 형성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삶의 이러한 지속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고 경험에 다가가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특히 교육연구에서의 내러티브의 필요성을 Clandinin과 Connelly(2000; Yeom, 1999: 123 recited)는 “교육과 교육 연구는 경험의 한 형태이다. 내러티브는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경험이며 우리는 그것을 내러티브적으로 연구하는데, 그 이유는 내러티브적인 사고가 경험의 주요 형태이며 경험에 대해 생각하고 글을 쓰는 주요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경험이 나의 관심사였다. 따라서 나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하여 교육실습생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험을 연구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나는 교육실습 기간 동안 어떤 경험들이 교육실습생들에게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향점을 찾도록 하였는지, 교육실습생 스스로의 글과 목소리를 통해 읽고 듣고 이야기하는 내러티브 서술에서 그들 상호간 및 지도교사들과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였는지, 또 지도교사들은 그들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 가는 과정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는지에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목적에 초점을 두고 다룬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실습 과정에서 교육실습생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 둘째,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육실습생들은 상호 간에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는가? 셋째, 지도교사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교육실습생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내러티브 탐구를 통하여 교육 현장에서 교육실습생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교직을 향한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나아가 현장 교사와 교육실습생 상호간 성장의 계기가 되는데 이 연구가 기여할 것을 기대해본다.

II. 이론적 배경

1.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란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며, 한 장소 또는 일련의 장소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 하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연구자와 참여자간의 협력이다.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을 구성하는 경험의 이야기들을 살아내고 이야기하고, 다시 살아내고(reliving) 다시 이야기하는(retelling) 가운데 탐구를 마무리 짓는 방법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K. Kim, 2011 recited). 또, 내러티브는 현상(연구대상)인 동시에 연구방법이다. 그들은 ‘이야기’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일화를, ‘내러티브’란 긴 시간에 걸쳐 있는 삶에 대한 사건들을 뜻하는 것으로 구별 짓는다. 그러므로 단일한

현상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사용하고, 탐구(inquiry)의 방법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내러티브’를 사용한다(Clandinin & Connelly, 1991; D. Kim, 2011 recited).

또한 Clandinin 과 Connelly에 의하면 내러티브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경험뿐만 아니라 연구를 위한 탐구 패턴까지를 의미한다. MacIntyre(1981), Polkinghorne(1988) 같은 학자들도 그들의 연구에서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중심이 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내러티브 탐구란 인간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고 재해석하는 방법까지 포함한다(Yeom, 1999; 2003).

Clandinin 과 Connelly는 탐구의 과정을 편의상 5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현장에 존재하기: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field texts)로: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로부터 연구 텍스트(research texts)로: 경험에 대한 의미 만들기’,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로써 이러한 단계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와 단계가 서로 겹치고 중복되기도 한다(Yeom, 2003). Kwon 과 Jo(2013)의 연구에서는 현장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 쓰기, 연구 텍스트 쓰기의 3단계로 수정하여 적용하였고, 국내의 대부분의 내러티브 탐구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현장에 존재하기는 연구자가 연구 현장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는 단계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현장 조사에서 원수해야 할 핵심적인 영역들, 즉 관계를 협상하기, 목적을 협상하기, 이행을 협상하기, 유용해지는 방법을 협상하기 등을 탐구한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이야기를 기록할 수도 있으나, 내러티브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활동, 행동, 사건들을 더 자주 기록한다. 이것은 장기간 연구하는 연구자에게 내러티브 소재이며, 친밀감과 관련이 된다(Clandinin & Connelly, 2000).

두 번째, 현장 텍스트는 내러티브 탐구에서 데이터로 간주된다. 데이터는 연구 경험의 객관적 표상이라는 생각을 수반하기 때문에 현장 텍스트에 어떻게 해석을 가미할 것인가는 중요하다. 현장 텍스트 구성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가 핵심이다.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계속되는 이야기와의 관계는 현장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만들어질 연구 텍스트에 의미를 부여한다. 만들어진 현

장 텍스트는 다소간 협력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다소간 해석적인 것이며 다소간 연구자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그것은 상황 나름이다. 연구자는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 텍스트에 묘사된 상황의 관계적 조건들을 일지에 기록할 필요가 있다(Clandinin & Connelly, 2000).

세 번째, 연구 텍스트는 현장 텍스트의 방대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시적 글쓰기를 적용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글쓰기 자체가 최종적으로 쓰여지는 연구 텍스트의 실제적인 형식에 차이를 가져다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의 글쓰기는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내러티브 탐구자는 연구의 초기부터 글쓰기의 유형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데, 어떤 유형으로 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대략적인 그림만을 그려보고 글쓰기가 진행됨에 따라 변화를 주거나 또는 확장시킬 수도 있다. Clandinin과 Connelly는 내러티브 탐구자가 내러티브 탐구의 삼차원적 공간 내에서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시킴으로써,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처음 글쓰기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내러티브 탐구로 쓰여진 논문이나 책 읽기’, ‘자신의 연구에 적절한 은유 찾기’,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문학작품이나 수필 등의 글 읽기’, ‘다양한 형태로 글쓰기를 시도해 보기’ 등을 권한다(Yeom, 2003).

2. 관련 선행연구

내러티브가 인간의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경험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내러티브는 교육학을 포함한 다른 학문 영역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 적용되어 왔다. 문학이론, 역사학, 인류학, 드라마, 미술, 영화, 신학, 철학, 심리학, 언어학, 교육학을 위시하여 심지어는 진화론적 생물학에서조차 내러티브론(narratology)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다(Connelly & Clandinin, 1990; Yeom, 1999 recited).

Clandinin과 Connelly의 내러티브 탐구로 연구된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인간의 삶과 경험 및 현상과 의미를 주제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과 그러한 관련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다양하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최근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엮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는 연구들(Hwang, 2011; Kim, Shin, & Lee, 2011; Kim, 2012; Lee & Lee, 2012; Lim & Kwon, 2012; Ryu & Lee, 2012; Sim, 2012; Jeon & Shin, 2013; Lee, Park, & Kim, 2013; Youn, 2013)이 대부분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아 영재 어머니, 병원중심 가정간호를 받는 만성질환 노인, 체육교과 교원임용고시 삼수생, 중국 조선족, 기업 상담자, 인도네시아 외국인 근로자들, 스포츠 지도자, 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여학생, 진로선택에서 우연을 기회로 만든 직장인, 집단 따돌림 당하는 여학생 등 다양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삶에서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으로 이루어진 연구(Lee, Lee, & Im, 2013)도 있다. 이는 연구 참여자를 수동적인 존재에서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여 질적 연구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숙고하도록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적 연구자로서 사는 동안 자신의 삶과 연구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윤리성을 이해해야하기 때문이다(Yeom, 1999).

그 밖에 태권도 용어 정립 과정에 참여한 연구원이 스스로의 인식을 기술하고 분석한 셀프 연구(Choi & Park, 2012)도 이루어졌다. 개인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에 대한 감각을 얻게 되고 인생을 의미 있는 전체로서 파악하게 된다. 개인들은 자기의 인생 전체에서 나온 다양한 이야기 가운데, 선별하여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응집성을 가지는 자기-내러티브를 만든다(Byun, 2012). 즉, 인간은 물리적 사건 그 자체가 아닌 그와 관련된 외적, 내적 경험들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로 표현되는 과정을 통해 삶을 알아가며 삶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Park, 2011).

내러티브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들을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보면 교육은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이야기들을 구축하고 재구성하는, 즉 교사와 학습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행위로 볼 수 있다(Connelly & Clandinin, 1990; Yeom, 1999 recited).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경험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각각의 교사가 들어가 있는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내러티브 탐구(Kim & Choi, 2005; Chung & Jin, 2009; Kim, Jeong, & Choi, 2009; Kang, 2011; C. Kim, 2011; Kim, 2012; Jeong & Lee,

2013; Kang & Kwon, 2013; Lee, 2013)를 진행하였다. 무자녀 원장으로서 부모교육에 대한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로 진행한 연구를 비롯하여, 진로교육 경험을 다룬 중학교 교사 및 전문계 고교 교사는 서로의 맥락에 따라 서로의 진로교육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로 진행하였다. 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교육이론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면서 나름대로의 교수 전략을 형성하게 되는데, Clandinin과 Connelly는 이것이 교사들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러티브가 교사들의 개인적 실천적 지식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본다(Kim, 2006). 또, 다문화 자녀의 체육 수업을 하는 교사, 장애 통합 학습의 교사 등 특수한 상황에 놓인 학생들과의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로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예비 체육 교사들의 교육과정 개발과정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로 연구했으며, 한국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들의 딜레마를 내러티브 탐구를 통하여 관심을 가졌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초임 교사 및 초임 보육교사 등 각 초임 교사들이 겪고 있는 경험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다.

Bruner(1986)는 패러다임적 사고와 내러티브적 사고를 대비시키면서 내러티브 사고 양식은 인간이 자신의 경험의 의미를 구성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는 근대 인식론이 논리 과학적인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하는 패러다임적 사고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인간의 삶의 심층적인 측면을 이해하려는 내러티브 사고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풍부하고 폭넓은 사고의 가능성을 차단해 왔다고 비판한다(Kim, 2006).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는 교육현상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연구과정 속에서 연구자의 존재를 배제했던 실증주의 연구방법론과 달리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자의 삶이 연구 과정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연구를 통해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함께 성장한다고 본다. 삶의 사건들 중 우리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수반했던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은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작업이다(Kim, 2006). 수업 연구를 위하여 초등교사와 대학의 교수 연구자가 서로의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로 소통한 연구(Kang & Lee, 2005) 또한 이런 맥락으로 바라볼 수 있다. 연구자와 실천가의 활동을 서로 연결 지어 탐색하면서 더 나은 주

체로 성장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러므로 내러티브 탐구는 다차원적 층위로 에워싸인 교육 현장에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써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들의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는 ○○시 ○○사범대학부설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실습생들을 매일 만난 나의 직접적인 참여경험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고는 교육실습에 역점을 두고 있는 학교이다. 연구 참여자는 2013년 5월 교육실습에 참여한 교육실습생으로 총 18개 교과 55명(남 19명, 여 36명) 중 사범대학생 48명, 교육대학원생 7명이었다. 이들은 ○○대학교 재학생 53명, 본교 졸업생으로서 타○○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으로 구성되었다. 가정과 교육실습생은 2명이 있었는데 최근에 가정교육과가 유아교육과로 변경됨에 따라 가정과 예비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들도 다른 교과 교육실습생과 동일한 일정을 밟아 나갔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지만 나는 교육실습부장이면서 가정 교과 지도교사로서 그들의 교사에 대한 정체성을 특별히 눈여겨 볼 수 있었다.

2. 현장 텍스트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많은 수의 교육실습생들이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로써 함께 공유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교육실습 온라인 카페를 구성하였다. 카페는 18개 교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들의 교과 방에서 교육실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유롭게 진솔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교육실습생들에게 관찰한 것과 자극 받은 것 그리고 현장 교사 및 학생들과의 상호작용한 이야기 등을

쓰도록 권유하였다. 그 외에 교육실습 기간 동안 실시한 여러 과제들도 카페 안에서 상호 교류하여 타과 교육실습생의 교사로서의 지향점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갔다. 나는 교육실습생들이 주 별로 카페에 작성한 이야기 220부와 개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실습일지를 매일 읽었다. 여기에는 실무와 수업 전후 협의록 및 실습 기간 동안 주어진 일정과 반성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실습과 관련된 기억 상자(memory-box), 사례 연구 55부, 학급 경영 계획서 55부, 교수 학습 지도안 55부, 나의 현장일지 19부, 온라인 카페 댓글을 포함한 교육실습생 상호작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 중 학급과 학생 관찰을 통한 사례 연구와 학급 경영 계획서는 교육실습생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고 세미나 자료로도 활용되어졌다. 그리고 교육실습생들의 주된 활동인 수업 개선과 향상을 돕기 위한 교수 학습 지도안은 각 교과의 지도교사와 연결하는 심층적 도구의 역할을 하였다. 현장 교사의 지도력은 교육실습생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들 자료들을 통해 이루어진 교육실습생들의 이야기와 일지 및 상호 작용으로 나는 온라인 댓글 등을 현장 텍스트로 활용하였다. 나는 현장 텍스트 분석과 해석을 위하여 모든 자료들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분석은 단어나 주제어에 초점을 두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맥락과 상황, 일어난 일, 인물 등을 삶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서 내러티브적으로 보아야 한다(Yeom, 2011)는 기존 문헌에 제시된 관점에 의해서였다.

3. 연구 텍스트 쓰기: 시적 글쓰기

나는 내러티브 탐구의 마지막 단계인 연구 텍스트 쓰기에서 1주~4주의 교육실습 과정을 각 주 별로 함축적인 시를 통하여 전개하였다. 네 편으로 나타난 이유는 교육 실습생 의식의 변화가 본교 교육실습 프로그램에 따라 주 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적 글쓰기는 그 용어가 뜻하고 있듯이 문학의 한 장르인 시의 기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기술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시를 읽을 때 산문에서 얻을 수 없는 감동과 느낌 그리고 이미

지를 갖는 것처럼 질적 글쓰기 방법으로써 시적 글쓰기는 그러한 효과를 주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적 글쓰기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일찍 시작된 글쓰기 중의 하나이며 다른 실험적 글쓰기에 비하여 보편화되어 있다. 많은 서구의 질적 연구 관련 학술지를 읽게 되면 저자들이 질적 자료들을 시로 표현한 작업이 많이 있다(Kim, 2010). 나는 또한 시에서 표현하는 함축적인 은유가 교육실습생들의 풍부한 내러티브를 의미 있게 담아내는 적절한 방법이라고 공감하였기에 시적 글쓰기를 적용하였다. 다양한 현장의 자료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로 하여금 시로써 그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진술하도록 했다. 때때로 연구자는 자신이 모은 자료를 조직할 때, 자료를 주시하면서 자료가 일어나 춤추기를 기다리고, 갈구하고,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러나 자료는 공책의 평평한 표면에 꼼짝 않고 그대로 있다. 무언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무언가가 착각 같기도 하고 끝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때에, 분석의 층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대안적인 접근을 이용할 수 있다(Phillips & Carr, 2006). 따라서 나는 시적 글쓰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내고 다시 이야기하며 내러티브 탐구를 실행해 나갔다.

4. 연구윤리에 대한 고려

본 연구는 교육실습생들이 작성한 이야기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교육실습생들에게 이 메일을 통해서 연구 자료 활용에 대한 동의와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개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불리한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다. 윤리성에 위배되는 내용은 자료 수집 과정에서 배제하였다. 또 자료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에 있는 원문 그대로를 인용하여 교육실습생들의 경험이 사실과 다르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1.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1) 연구자

나는 1990년 0월 교원 임용시험을 통하여 교사가 된 후 올해 23년 차에 접어드는 중견 교사이자 00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가정교육 전공으로 재학 중이다. 현재 근무하는 학교는 00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로 대학과 연계되어 있어서 연구자로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가정 교과 외 전문 상담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서 경청과 공감 능력으로 인터뷰를 끌고 갈 수 있다. 또, 국어과 석사학위와 논술 지도자 자격증 그리고 시인으로 시를 쓰고 있어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포착하는 힘으로 글쓰기에 관심이 많다. 그리하여 나는 내러티브 탐구를 비롯한 질적 연구자로서 교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연구자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나는 시의 길을 걷고 있었다. 2012년도에 중앙 문단에 등단을 하였고 2013년에 교육과 시를 접목시켜 D대학 문예창작과 주관 전국교단문예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나는 사과의 껍이 두꺼운 철학이나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도 시로써 소통하고자 했다. 그때 두꺼움이 벗겨지고 정돈되는 긍정적인 체험을 하였다. 시는 결코 단순하고 보편적이지 않은 속성을 갖고 있다. 나는 교육실습생들 지근에서 듣고 본 이야기의 수면 아래 깔려 있는 그 세밀한 감정을 배제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나의 고유한 감동이 진술문보다 시적 글쓰기로 연구 텍스트를 표현하게 하였다. 그리고 Kim(2010)이 전문가가 평가하기에는 그렇게 새롭다고 평가할 텍스트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텍스트의 제작과 확산이 우리나라 질적 연구의 또 다른 전환점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확장시킨다는 관점에 나도 동의했기 때문이다.

2) 연구 현장

본 연구는 00시에 소재하고 있는 00고에서 근무하면

서 진행되었다. ○○고에서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는데 그 중 역점을 둔 활동이 교육실습으로써 해마다 50명 내외의 교육실습생을 지도하고 있다. 연구가 진행된 2013년에는 총 18개 교과의 교육실습생 55명(남 19명, 여 36명) 중 사범대학생 48명, 교육대학원생 7명이 참여했다.

3) 교육실습 프로그램

외부에서 내부로 접근해 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1주에는 ‘학교 읽기’ 주간으로 지칭한다. 이 기간의 주요 행사로 중간고사가 있었다. 그래서 주된 일정은 시험 감독 참관과 교직 실무 연습였다. 2주에는 ‘교실 읽기’ 주간으로 수업 참관과 교실 조-종례 및 실제 수업 탐구가 이루어졌다. 3주에는 ‘학생 읽기’ 주간으로 실제 수업 실습이 이루어졌고, 연구 수업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4주에는 보다 심도 있는 ‘학생 읽기’ 주간으로 대표자 연구 수업과 수업 실습 그리고 학급경영 및 사례연구에 대한 세미나를 끝으로 교육실습은 마무리 되었다.

4) 예비 소집: 교육실습생 55명의 만남

교육실습 실시 사흘 전에 예비소집을 했다. 3월 초부터 제작한 간행물인 교육실습 안내서를 나누어 주었다. 교육실습생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사전 교육을 받은 터라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교육실습생들은 무엇을 입고 무엇을 신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지도교사: 어떻게 입어야 할지 답할 수 있는 분?

교육실습생: 정장입니다.

지도교사: 왜 그렇게 입어야 할까? 지금 나는 이렇게 편하게 입으면서 교육실습생은 왜 불편한 정장을 입으라고 할까요?

교육실습생: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외, 다양한 답변)

지도교사: 학생들이 교육실습생을 대학생 언니 오빠로 봐주길 원하는가? 연예인으로 봐주길 원하는가? 아니면 선생님으로 봐 주길 원하는가? (중략)

오리엔테이션의 과정은 안내를 위한 설명보다 질문 그리고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나는 교육실습 기간에도 스스로 탐구하는 체험을 위해 마침표보다 물음표를 자주 사용하였다.

지도교사: 제가 줄 수 있는 점수는 50점입니다. 지금 나누어 드린 종이에 받고 싶은 점수를 써 주세요.

교육실습생: 무슨 말씀이신지?

지도교사: 여러분이 쓴 점수를 그대로 드릴 테니 원하는 점수를 써 주세요.

교육실습생: (소신껏 쓴다)(노치를 살핀다)(머뭇거리다)

(2013. 5. 3 기억상자)

55명의 교육실습생 중 44명이 45점 이상을 썼다. 4명의 교육실습생은 40점, 7명의 교육실습생은 적지 않았다. 점수를 원하는 대로 준다고 해도 머뭇거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다. 겸손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온 후, 인터뷰를 해 본 11명은 교직에 대한 생각이 명료하지 않았다. 그 중 4명은 교직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어서 교육실습은 통과 의례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44명의 교육실습생 또한 4주의 과정이 끝난 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2. 현장 텍스트 쓰기

1) 1주차 학교 읽기: 변환적인 역할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모색

(1) 교육실습생의 이야기: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리둥절’ 서성였다. (국어 강○○)

1주차에는 교육실습생의 표현대로 ‘어리둥절’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어리둥절’은 여러 면에서 그랬을 것이다. 이기적인 성격으로 교사를 할 수 있을까?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면서도 아이들을 사랑할 자신이 있을까? 교육실습 기간 동안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실습이 끝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갈까?

흔히 교사는 전문직이자 봉사직 이라고 한다. 지식은 공부해서 채우면 된다고 해도, 아직까지 어리고 나뭇에 생

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내가 참된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못 내리고 있다. (국어 김○○)

교사의 꿈을 안고 사범대에 들어와 대학생활을 하면서 진로가 바뀐 사람. 방향을 잡지 못해 여전히 헤매는 사람. 다른 길을 걷다가 교직에 뜻을 품고 편입하거나 대학원을 진학한 사람 등. 모두가 실습이 끝났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갈지 궁금해진다. (일사 이○○)

(2) 한 교육실습생이 다른 교육실습생에게)

카페 안에서, 교육실습생들의 이야기가 자유롭게 쏟아져 나왔다. 때로는 지향점을 가로막는 불안과 초조함을 드러내자 곧 경청을 얻고 공감을 얻었다.

한 주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신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생각들과도 비슷한 점이 많아서 더 공감하게 되네요! 다음 주도 힘냅시다~ (국어 서○○에게 역사 이○○가) 학생들은 교사가 안고 가야 할 미숙한 잠재적 존재 라는 부분이 와 달았습시다~* 미숙하기에 실수하고 어쩌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 교사는 그걸 나무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가슴으로 안아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영어 임○○에게 화학 임○○이) 잘 읽었습니다^^ 저는 교육실습 오기 전에는 선생님들은 아주 보수적인 분들인 분들이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더 변화에 유연하시고 직분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충실히 임하시는 모습 너무 멋있었습니다~* (음악 임○○에게 화학 이○○이) 저도 일주일동안 실습하면서 평소에 임용고시 합격해서 교사만 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ㅠ (생물 박○○에게 음악 박○○이)

(3) 교육실습생이 지도교사에게

교육실습생들은 1주차 떨림을 나에게 전하며 지향점 모색을 조심스럽게 비추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낮을 가리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습니

다. 많은 학생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긴장되고 떨어져 점심 자장면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학 옥○○)

시험 참관을 하면서 학생들의 눈빛을 보는데 어쩌나 떨리고 한편으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학생들이 앞에 안 서본 이상 선생님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교사라는 직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어 오○○)

좋음을 봤을 때의 그 느낌! 이번 교육실습생기간 동안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한달 간의 교육실습생 기간에 생각을 바로 잡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리 박○○)

2) 2주차 교실읽기: 다각적인 접근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자극

(1) 교육실습생의 이야기: 나를 말린 북어처럼 두드리고 간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음악 김○○)

2주차 교육실습생의 이야기에는 말린 북어처럼 두드리고 간 시간이라는 재미있는 표현이 눈에 띄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교실 뒤에서 수업을 참관하며 오고 간 많은 생각들을 말하고 있었다. 모두를 집중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 학급별로 시간대별로 분위기가 다르다는 생각, 모둠별로 앉아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다르다는 생각 등이다. 전공 외 다양한 수업을 참관하면서 지배한 수많은 생각들이 생방송 현장처럼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들이 교육실습생들을 북어처럼 두드렸다는 것은 지향점을 현실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참관이라는 것은 뭔가 기묘하다. 교실 안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관객마냥 교실 현장 바깥의 존재이고, 관객이라고 하기엔 전체 조영이 머리 위에 훑히고 비추고 있다. (영어 하○○)

참관을 하면서 느낀 것은 35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그 학생들을 다 수업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술실은 학생들이 다 같이 칠판 쪽을 보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둠 형식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미술 조○○)

1) 교육실습생들이 카페에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자유롭게 작성한 인터넷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여 교육실습생들의 경험이 사실과 다르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였다.

내가 고등학생일 때에는 다른 반의 분위기를 느끼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똑같은 곳에 다른 신분으로 서보니 반별 시간별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각각각색의 수업분위기에 따라 방식을 바꿔가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일어 이○○)

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체육전문학교를 다녀서 일반 중,고등학생들의 교과목은 물론 수업방식도 전혀 몰랐고 대학교 입학도 수시로 들어와서 수능도 안보고 대학생이 되었다. 그래서 체육, 수학, 국어, 지리 등 여러 교과목도 참관을 해 보았다. (체육 김○○)

막상 학교에 와보니 이곳은 내가 연습했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 단 5분후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생방송 현장이라는 것을 느낀다. (특수 김○○)

1주차가 끝났을 때 다른 사람들의 소감을 읽고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1주차 실습동안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문 박○○)

(2) 한 교육실습생이 다른 교육실습생에게

참관에 대한 교육실습생 상호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크다. 여기저기 흠어진 다양한 수업을 참관하며 비법을 훑쳐보는 교육실습생들의 적극적인 행동은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와 선생님, 다양한 수업 참관하셨습니다. 많이 보고 배우신 거 같아 부럽습니다. (수학 도○○에게 영어 변○○이) 정말 학생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너무나 좋더라고요. 설렌다고 해야할까.. 선생님도 이번주에 그걸 느끼셨군요 ㅋㅋ (역사 박○○에게 윤리 안○○가)

국사 수업 참관 못해서 아쉽네요.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잘 읽고 갑니다~ (역사 조○○에게 영어 서○○가) 비유를 정말 맛있게 하세요ㅋㅋㅋ 맛 집의 비법을 훑쳐보는 기분이라니 공감합니다^^ 수업 참관할 때마다 내뱉는 감탄사는 저랑 같으세요 저만 그런줄ㅠㅠ 감탄사가 나올 만큼 (가정 김○○에게 국어 조○○가)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를 이렇게 만든 것도 교사이고, 바꾸는 것도 교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체육 조○○에게 가정 김○○이)

저도 월요일에 수업할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려요~ (특수 유○○에게 국어 김○○이)

(3) 교육실습생이 지도교사에게

1주차보다 상호 간 익숙해진 교육실습생들은 교육실습생 상호 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공동체의 힘을 느낀다고 했다. 그들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대상들과 엮었을 때 생성되는 정체성을 향한 희망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교육실습 샘들에게도 많은 것을 배웁니다. 티쳐 프루프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바리스타의 개인차가 메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 둔 것을 떠오르게 하네요. 내 커피에는 나를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 이○○)

하루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반성하는 것이 좋아요. 선생님! 저는 항상 타인에게 고쳤으면 하는 점을 듣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특수 이○○)

3) 3주차 학생읽기: 실존적인 고민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파악

(1) 교육실습생의 이야기: 무소의 뽕처럼 혼자서 가라 (화학 이○○)

3주차 교육실습생들은 한 시간 수업하는데 많은 자료가 필요함을 느꼈다. 대학 에서 시험도 봤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교재 연구는 다시 해야 했다. 숨뭉치 같은 몸을 이끌고 잠을 쫓으며 겨우 만든 수업 자료에 학생들은 감동은커녕, 무심히 자거나 외면했다. 눈물도 나고 화도 났다. 그러나 3주차 말에 교육실습생들에게도 이를 던지고 일어서는 시간이 왔다. 수업 중에 학생들이 보였다라는 것이다.

가장 바쁘고 힘든 한 주. 수업을 듣는 아이들, 수업 분위기, 아이들과 나의 상호작용, 나의 기분, 몸 상태, 수업 준비 상태, 참관 온 교생 선생님들 등. 오직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사실은 그 시간이 다른 누구도 아닌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국어 변○○)

소설을 같이 해석하다가 중간에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다 하면서 수업을 중지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적막함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나랑 안면이 있던 아이가 수고했다는 표정으로 눈인사를 하고 지나갔다. 평소 밝게 인사하던 친구인데 하,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거 같았다. 어디 가서 숨고 싶었다. 눈물이 왈칵 났다. 그냥

서러웠다. (영어 유○○)
수업이 중반을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화학이 좋아서 나는 꼭 배우겠어요 라고 굳은 의지를 지닌 몇몇의 아이들을 빼고는 모두들 깊은 수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학원 강사의 경험도 꽤나 있고 교재연구 수업에서도 좋은 성적과 담당교수님의 칭찬을 받은 나로서는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 되고 기진맥진에 너무도 한심한 꼴이 되었다. (화학 이○○)

이번 주에는 지난 2주와는 정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학원이나 영어캠프에서 학생들 앞에 서 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사교육 현장에서의 수업은 체계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그냥 내 맘대로 하는 수업이었는데, (영어 강○○)

내가 수업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개미구멍이라도 숨고 싶다. 어색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와 표정, 눈빛이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저장된 화면에는 그저 그런 소리로 들릴 뿐이고, 단조로운 수업으로 학생들은 집중력이 떨어지고, 쫓기듯 수업하는 게 티가 났다. (수학 이○○)

3일쯤 지났을 때는 학생들의 얼굴과 표정이 보였다. 정말 신기했다. 매일 수업을 할 때 내가 준비한 내용을 말하기에 바빠 학생들의 얼굴이 보이기는커녕,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는데, 갑자기 보였다. (윤리 박○○)

셀프 스테디를 위해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 내 수업을 보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목소리가 너무 작고 단조로웠다. 수업 장악력이 부족하고 카리스마도 없었다. (국어 정○○)

금요일에는 수업을 마치고 나왔을 때 스스로 만족하고 웃으며 교실에서 나왔다. 수요일까지의 수업은 내가 즐겁지가 않고 두려움의 존재로 느껴서 힘들게만 느꼈던 것이다. 금요일의 수업은 나의 교육실습생 생활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날이었다. (일사 김○○)

(2) 한 교육실습생이 다른 교육실습생에게

실수투성이 수업의 눈물을 닦아 준 사람은 다른 교육실습생들의 이야기였다. 판서의 미숙함,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수업 등 그들은 아파하며 서로 공유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셀프 스테디를 하고 협의회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쳤다.

저도 판서로 수업한 적이 있는데, 그때의 당황함이란 엄청나죠 ππππ 그래도 그 때의 사건으로 준비를 더 많

이 하게 되고, 판서도 개인적으로 계획 세우게 되더라구요. (지리 정○○에게 윤리 박○○이)
맞아요~ 수업할 때마다 과연 지금 이 학생들이 내 수업을 지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집중하고 있긴 한 걸까.. 하는 많은 의문이 들어요... (영어 하○○에게 일어 김○○이)
선생님은 핵융합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을 바꾸기 무척 어렵다고 하잖아요. 남을 바꾸는 건 더욱 어렵구요. 그런데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바꿔놓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화학 이○○에게 일어 이○○이)
이렇게 선생님을 위로하지만 저도 첫 수업을 하고 나서 자존감이 곤두박질 쳤었어요.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도 위로받고 갑니다. (불어 정○○에게 지리 황○○이)
셀프스테디 하러 찍어놓은 동영상은 참 부끄럽고 어색하더라구요 (물리 김○○에게 수학 이○○이)

(3) 교육실습생이 지도교사에게

학생과의 교감이 정말 어려웠다는 하소연을 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이 하소연이 곧 이 상황을 넘고 싶다는 희망이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임을 알았다.

저도 어제 첫 수업을 했는데 너무 부끄럽고 학생들에게 미안한 수업이었습니다. 밤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 왜 그랬을까...' 하며 잠도 못 이루고 한숨만 쉬었어요. 이미 끝나버린 수업은 다시 할 수 없는 건데, 후회만 가득 남아버렸네요 (일어 이○○)

어제 제가 처음 수업을 마치고 딱 이 기분이었습니다 다~~존재의 수치심 ~π (화학 이○○)

가장 아름다운 물고기 한 마리의 목소리를 이끌어냈다면 그것 역시 성공적인 질문이겠지요. 그러나 나머지 물고기들이 뺨꿈대기는 커녕 멍하게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찝찝한 이 기분이 너무 힘이 드네요..ππ (영어 김○○)

4) 4주차 학생읽기: 정면에 놓인 선택과 교사로서의 정체성 약속

(1) 교육실습생의 이야기: What's the key to being a ET? That is a problem, (영어 김○○)

실습이 끝나고 스스로를 돌아다보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해 가고 있었다. 그들은 교직의 길을 걸어가고자 굳은 약속을 하며 밑줄을 긋고 있었다.

세미나를 끝으로 한 달 간의 교육실습도 매듭을 지었다. 첫 수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였다. 이유는 '내가 수업을 너무 못해서' 였다. 4주를 끝낸 지금은 드는 생각은 '이 길이 내가 갈 길이다' 이다. (국어 이○○)

많은 '배움'을 빚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들이, 특별히 더 멋지고 멋진 선생님이 되기를 기원한다. (음악 박○○)

내가 선생님이 되어야 할 이유를 실습 전에는 나에게서만 찾는데 비해 실습을 통해 아이들에게서 찾게 되었다. 아이들이 내가 선생이 되어야 할 이유가 되어 버렸다. (영어 김○○)

실습 시작하고 1주차에 그런 말을 했었다. 이번 실습을 통해 나는 과연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더 좋아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 그렇기에 앞으로의 실습이 기대된다고. 실습을 마무리하며 느꼈다. 난 꼭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일어 김○○)

(2) 지도교사가 교육실습생에게

4주차 이야기에 나는 그들 모두에게 나의 목소리를 개인 대 개인으로 전해주었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은 결과에 대한 위로와 격려였다.

여러 교생 선생님에 참 많이 성장하셨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 교생 선생님도 그 중 한 분입니다. 체육 수업에 날개를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체육 백○○에게) 카페이를 "ET" 라 지을 때부터 교육실습생 대표의 역량이 예사롭지 않음을 짐작했지요. 역시, 짧게 쓰는 게 더 어려운 법인데..그럼 저도 이만, 나머지는 이심전심!

(영어 임○○)
생각과 의지가 보입니다. 학교로 반드시 돌아오시길... (수학 이○○에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를 매사에 아주 잘 알고 있더군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으실 겁니다.' 사례연구'도 잘 봤습니다. (일어 김○○에게)

(3) 교육실습생이 지도교사에게

교육실습생들은 그들이 찾은 정체성을 나에게 신선한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정글에서는 올바른 방향과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가끔 뒤돌아선 채로 뒷걸음질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용 준비로 바쁜 4학년의 한 달을 실습으로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고 3학년때 실습 다녀온 다른 지방 친구가 물어보았을 때, 저 또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이 지나고 6월 1일 오늘 돌아보니,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방향을 제대로 잡기 위해 뒤돌아선 채로 걷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잊지 못할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강○○)

저는 실습이 끝나고 하루 동안 밀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지난 4주가 꿈이 아니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4주가 하루 밤의 꿈이 아닌 앞으로 꿈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미술 하○○)

2. 연구 텍스트 쓰기

교육실습생들의 1주는 탐색의 시간이다. 숨어 있는 스스로를 찾고자 했다. 2주에는 학교와 학생과 현장 교사의 사이에서 그림자 같았으나 관찰하고 자극받으며 무언가 되고 싶어 했다. 3주에 실제로 부딪혀 본 학교 학생들은 각설탕처럼 가늠하기 어려운 존재인데 달콤하게 다가왔다. 교육실습생도 각설탕처럼 견고하게 틀 잡힌 상황을 준비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각을 허물어 학생들에게 스며든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마침내 찾아가간다. 교육실습을 마치는 날에 교육실습생들은 리본에 소망을 적은 유등을 학교라는 강물에 띄운다. 유등이 춤을 춘다.

1) 1주, 탐색 : 숨은 나 찾기

숨은 나 찾기

진 형 란

선생을 가장한 한 어절의 낱말을

찾아야 해

나의 영토에 숨어 있는 선생은
살을 지피고 맥박을 뜨겁게
바꾸어 놓았어

텅 빈 주머니의 행운 없는 듯한 입구나
허파의 파리처럼 부어오른 자리,
그 사이
고독하게 뛰고 있는 심장을 휘저어 봐

소라 속으로 숨어 들어간 가재처럼 낯설게
뿌리 내리고 있을지 몰라

초고속 카메라로 깜빡거리려 보면
훌륭한 사랑을 품고
우리 엄마처럼 끝없는 미소를 번식하고 있어

오전에 유행하던 최신 렌즈로
더듬더듬 들여다보는 것도 괜찮아
물론 그 과 표 와 사 과 라 는 힌트 부스스리는
허벅지 사이에 끼워져 있지 않아

교사가 되고 싶는데 자신에게 맞는 것일까? 현장 선생님들
을 보면서 기준에 가지고 있는 교사의 이미지는 달라졌다.
스스로 생각했던 자질은 좋은 교사가 아니라 좋은 강사를 만
드는 조건일지 모른다고 고민하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탐색
한다.

2) 2주, 성장 : 그림자 5월

그림자, 5월

진 형 란

년 또 내게서 등을 돌리고 가는구나 애초에 까야망게 태
어난 나에게 제대로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 뿐이야. 거
북이와 걸어가는 태양은 아직도 서늘 산을 넘지 않고 있
어. 너는 풍경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그물로도 잡히지 않
는 나는 무성 영화의 주인공으로 살 터이니. 미지수 X의
답을 찾아 가듯 무대 위 나의 코와 입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

찰리 채플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야

오월의 신록이 바람을 만나고 태양을 만났어 사각사각
소리신발을 신고 하늘하늘 무늬옷을 입은 춤사위를 땡별
에 더욱 가무잡잡해진 나는 멈추어서 바라보고 있어 나
도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나도 무엇이 되고 싶었지 붉은
벽에 기대어 너를 따라 흐느적거리려 거북아 거북아 태양
의 걸음을 조금만 더 늦추어 줘

교육실습생은 교사의 그림자 같기도 하고 학생의 그림자
같기도 하다. 실체는 무엇일까? 무엇이 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교무실 저 교실을 휘젓고 다니지만
주목받지 않는다. 뒤에서 보고 있는 교실의 풍경이 그저 경
이롭다.

3) 3주, 반성 : 각설탕

각설탕

진 형 란

온도가 오르고 각이 허물어져 단맛이 퍼져나가기 전, 우
리는 만루에 주자를 둔 마운드 위 투수의 두 번째 손가
락만큼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지 온 몸을 웅크리고 여섯
면의 큐브 안에서 달콤한 실상을 억누르던 우리들은 하
아얀 목시록이었어 손가락에 얹힌 설탕가루의 방긋방긋
헤픈 웃음을 볼 때마다 속으로 쓴 울음을 삼킬 수밖에
없었지 (중략) 그러나 바람 같은 진실을 사랑하고 깊이
있는 달콤함에 호감을 가지는 이를 만났어 왼쪽 담장을
훌쩍 넘기는 역전 만루 홈런을 치고 운동장을 도는 타자
의 두 배속 심장만큼 우리는 합성을 질렀지 어깨동무한
팔을 풀었어 서로서로 지탱했던 각이 허물어지고 있었어
온도가 많이 올랐거든.

드디어 수업의 장에 뛰어들었다. 교실의 공기는 전 주와 넘
새가 달랐다. 학생이라는 요상하고 요상한 세력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분명히 현장의 학생들은 사랑하는 달콤한 그
무엇인데, 각설탕처럼 각이 허물어지지 않는다. 각설탕처럼 단
단한 시나리오는 생방송 현장에서 생기는 돌발 상황에서 단
맛을 내지 못할 무렵, 목요일 모의고사라는 희생의 시간이 생

졌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시 목을 축이고 숨을 돌렸다. 긴장을 풀고 실제적인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협의회를 하고 공동체를 구성했다. 스스로 짠 수업 동영상도 들여다보며 셀프스터디를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았다. 작은 흥분이 생겼다.

4) 4주, 다짐 : 유등 춤

유등 춤

진 형 란

춤을 추어라
우주의 발 밑을 나는 새들과
성 안 노루의 맥박이 두 배로 오르내린다

탈을 쓴 유등의
너울거리는 어깨춤 너머
창백한 서풍이 분다
시간의 뒷에서 빠져나와
무심하게 바쁜 저녁을 저 산에 걸어두자
당신은 나를 사랑하기에
놀라지 않을 거다
춤을 추어라
살에 박힌 가시처럼 따끔따끔한
상처의 바라춤이며
나뭇가지에 벗어 놓은 달 그림자같이,
홍터는 남강의 몸 비늘 고리에
달아두고
우리의 뜨거운 소망을 풀자

춤을 추어라
물의 턱을 넘는 갈바람과
식지 않는 어둠이 무대의 배경이다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한다. 리본에 소망을 적은 등의 심지에 불을 켜다. 타오른다. 임용 시험에 합격해 학생들 앞에서 이제 정식으로 설 것이다. 그 동안의 상처와 고통은 필요한 여정이었다. 소망이 춤을 춘다. 식지 않는 열정이 교사를 향한 정체성의 무대가 될 것이다.

V. 반성 및 결론

연구 문제와 관련지어 교육실습생들은 교사로서의 정체성 혹은 교직을 향한 지향점과 관련하여 주 별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는가를 본 결과, 1주차의 탐색과 2주차의 성장 및 3주차의 반성과 4주차의 다짐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한 대상은 학생들을 비롯하여 지도교사와 동료교육실습생들이었다. 그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긴밀하게 상호작용 하였다. 나를 포함한 지도교사들은 교사로서의 정체성 혹은 교직을 향한 지향점을 찾아가는 교육실습생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를 보기 위해 다음 이야기로 들어간다.

1. 보다 vs 못 보다

이야기를 구성할 때 경험의 시작은 경험의 결말에 비추어 재구성되며 경험의 결말은 경험의 시작에 비추어 재구성된다. 과거 또는 현재의 경험은 그 순간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해석되고 재해석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Kim, 2006)

1990년 5월 나는 친구와 A중학교에 교육실습을 나갔다. 친구는 교사가 되길 원했고 나는 원하지 않았다. 조용히 지내다가 돌아가리라 생각하였다. 친구의 지도교사는 아주 의욕적이었다. 그들은 자주 협의를 했다. 혼자 수업을 하던 어느 날, 친구의 지도교사가 조용히 들어오셔서 참관하셨다.

연구수업을 이틀 앞둔 주말,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저히 연구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와서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친구는 간곡히 부탁을 하였다. 연구수업 준비를 서둘러 했다. 단원은 ‘식품의 부패’였다. 황급히 나는 부패된 통조림과 부패된 김 등 수업자료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연구 수업을 했다. 연구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교육실습생이 참관을 하였다. 학생들은 잘 호응해 주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수업의 희열을 느꼈다. 교육실습이 끝나던 날, 선물로 준 노트를 보았다. 학급 학생들이 쓴 편지 모음이었다.

몽클했다. 교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교원 임용공부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이듬해 나는 가정과 교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가정과 교사를 하고 있다. 나는 20년도 훌쩍 지난 그 때의 연구 수업 단원과 학습을 기억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교육실습이 없었다면 나는 현재 무엇이 되어 있을까? 친구의 지도교사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현재 무엇이 되어 있을까? 현장의 지도교사들이 모두 교육실습생들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혹은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4주 동안 교육실습생들과 얽힌 현장에서 무엇을 보여 주는가 혹은 보여 주지 않는가는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 듣다 vs 못 듣다

내러티브 탐구는 우리가 작업 과정에서 말하고, 듣고, 읽은 이야기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조화하고 의미를 전달하는데 사용하는 일화, 잡담, 문서, 저널기사, 발표, 미디어 그리고 모든 다른 텍스트와 가공물들은 이야기 과정의 수단이다. (Webster & Mertova, 2007)

본 연구 과정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 주 별로 교육실습생의 이야기를 비롯하여, 한 교육실습생이 다른 교육실습생에게 그리고 교육실습생이 지도교사에게 혹은 지도교사가 교육실습생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온라인 카페는 여러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서로 간의 상호작용은 격려하고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다. 실습이 종료된 후, 과제를 다시 반추해 볼 수 있는 기능적인 면도 눈여겨볼 만하다. 거의 대부분 교사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런데 온라인 카페에서 대부분 교육실습생이 지향점에 대한 다짐과 감사의 이야기를 전했기에, 반대의 입장에 놓인 교육실습생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남기지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 사범대학에 들어왔고 현장체험을 했는데도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이이었을까?

학급에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은 명량한 학생이나 공부 잘하는 학생, 혹은 주의 산만한 학생 등 어떤 식으로든 교사의 눈길을 받는 학생들에 비해 관심을 덜 받는다. 그렇지만 그들은 더 많은 내면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드러나지 않는 교육실습생에게 다가가야 했다.

또, 현장 학생들의 이야기도 더 들을 필요가 있었다. 정작 학생은 교육실습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실존들이다. 특히 교육실습생의 수업을 들은 학생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했다. 학생이 던지는 메시지가 교직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될 수 있는데 말이다.

3. 읽다 vs 못 읽다

사람들은 이야기들을 갈망한다. 예술에 의해 모양 지어질 경험에 상상 속으로 참여할 때 세상과 맞설 능력 속에서 사람들은 배우고 성장한다. 이 이야기하기 진실은 도덕적인 것이지, 객관적이지는 않다; 모든 청취자는 독특하고 그 혹은 그녀 자신의 필요들에 따라 이야기로부터 각자가 가치를 얻어낸다. (Harrison, 2008)

나는 교육실습생들의 일지에서 사례연구를 흥미롭게 읽었다. 소위 문제 아이들이 익명으로 관찰되고 있었다. 누구인지 짐작이 갔다. 교육실습생보다 더 오래 보아 온 나와 관찰한 부분이 별반 차이는 없었다. 대상 학생이 현장 교사와 교육실습생 앞에서의 행동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찰에서 해석으로 들어섰을 때 교육실습생과 나의 생각은 달랐다. 교육실습생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권위적인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 날 세미나를 통해서 충분히 사례들을 읽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오산이었다. 55명이라는 교육실습생이 모두 그들의 사례를 이야기하기에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또, 연구 대상이 되었던 사례 또한 평범하지 않았다. 간혹 이해되지 않은 물음도 내재되어 있어서 사례 연구 대상 학생에 대한 발표와 이해 및 해석의 시간은 오래 걸렸다. 4주가 지날 때까지 다가가는 방법조차 찾지 못하여 주변만 맴돈 교육

실습생도 있었다. 어쩌면 수업 외 다른 층위에 존재하는 학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교육실습생의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도울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4. 쓰다 vs 못 쓰다

글쓰기에 대하여 Ray Bradbury(1994)의 충고를 조언으로 소개한다. "만일 여러분이 열정이나 즐거움 없이 글쓰기를 한다면, 그리고 글쓰기를 사랑하지도 않고 재미 있어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은 단지 절반의 작가이다. 맨 먼저 작가는 흥분되어야 한다. 그는 열의와 열정의 무엇이어야 한다. (Phillips & Carr, 2006)

내가 시에서 사용한 시어들은 은유적 표현들이다. 숨은 나, 그림자와 각설탕 그리고 유등 춤은 교육실습생들이 교사로서 지향해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따로 떼어보면 전혀 관련 없는 사물이나, 시로 삼입되면서 더 깊고 확대된 말과 감정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운율과 맺어져 시선을 끌고 있다. 이는 포스터 모더니즘 시대의 다양한 가치 접근에 있어서 진정성과 고유성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나의 글쓰기 방법으로 시도된 것이다.

질적 연구에 이렇게 시적 글쓰기를 차용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것과 우리의 말이 산문보다는 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Kim, 2010). 그러나 그 과정에서 꼭 짚어 쓰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과들의 비교와 차이이다. 교육실습생은 학생의 수업 시수와 관련되어 배정받는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의 교육실습생이 7-8명이라면 그 외 교과는 대부분 2명이다. 그러다보니 국영수의 교육실습생과 지도교사간의 협의회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연구수업 때 뚜렷이 비교된다. 1교과 1연구수업이 이루어지다보니, 7명과 2명 중에서 선정된 연구수업 준비 과정은 다르다. 전자의 연구 수업자는 수업에 치중할 수 있도록 지도안과 ppt제작 등 철저히 역할 분담에 의해 이루어진다. 후자인 연구 수업자는 부담할 몫이 많다. 질 좋은 수업은 보다 철저한 준비에 달려있다. 수업 시수의 불가피함이 교육실습에 그대로 전달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게다가, 주로 등과 교사가 참관

하는 국영수 전공자의 연구수업 장에만 복직거린다. 국영수 외의 교과로 살아간다는 것의 씁쓸함을 체험한 교육실습생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지도교사 이면서 교육실습생과 같은 호흡으로 연구수업을 준비하였다. 그 결과 가정과 교육실습생과 나의 이야기를 남기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한다.

가정교육과가 유아교육과로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과의 정체성이 바로 잡혔다. 선생님을 통해 희망을 보았다. 또 가정이 어떤 과목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었다. 나도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이 꼭 되어야겠다. (가정 조00, 4주차)

(중략)

7년간 교육실습생 연구수업을 지도했지만 이렇게 몽클하고 의미심장한 감정은 처음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군요. 세상에는 정의할 수 없는 상황이 참 많습니다. 저는 난만 뜨면 수업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수업을 바라본 것이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수업은 정말로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존경과 사랑 그리고 의리를 비롯한 여러 책임 있는 정서가 녹아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지요. 숙성된 경험과 연륜이 필요한 과정에서 산뜻하고 산뜻한 ○선생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과정이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순수하고 강한 사람이더군요. 욕심과 용기도 있으면서 상냥하고 낙천적이었습니다. 수업 중 돌발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거나 떨지 않지요. 그렇게 생글생글하던 얼굴이 어젯밤 잠을 못 이기고 꾸벅거릴 때 잠시 눈을 부치라고 해도, 엎드리지 않고 다리를 두드리고 찬바람을 쐬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보면 ○선생을 옆에 앉혀두고 계속 밀어붙이는 저는 참 잔인한 사람이지요. 자정이 되어갈 무렵 ○선생의 얼굴이 너무 초췌해서 내일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염려되었는데, 오늘 아침 그 모습은 온데 간 데 없더군요. 놀라운 것은 교실에 들어가면 언제 피로했나는 듯 특유의 생글생글한 얼굴로 수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의 근성을 보았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어 놓고 수업은 어쩌면 그렇게 맑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요. 젊음인가요? (후략)

(연구자가 연구수업 후 가정과 교육실습생들에게 전한 이야기)

참고문헌

- Bruner, J. (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yun, H. S. (2012). Die funktionen des narrativs und die poesietherapie. *Büchner and Hyeondaemunhak*, 39, 285-305.
- Choi, C. S., & Park, J. H. (2012). A Narrative inquiry on taekwondo technical terminology establishment.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3(1), 47-57.
- Choi, H. J. (2009). A narrative on prospective teachers's physical education practice at secondary school.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6(1), 57-75.
- Chung, Y. S., & Jin, S. M. (2009). Middle school teachers' narratives of career education.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8(3), 85-109.
- Clandinin, D. J., & Connelly, F. M.(1991). Narrative and story in practice and research. D. Schon(Ed.). *The Reflective Tur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258-281.
- Clandinin, J., & Connelly,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Connelly, M., & Clandinin,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 Harrison, M. D. (2008). *Narrative based evaluation -Wording toward the light-*. New York, N.Y: Peter Lang Pub Inc.
- Hur, C. S. (2007). Practicum as a place for reconstructing pedagogical knowledge: Experiences of five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5(1), 95-127.
- Jeon, E. K., & Shin, H. S. (2013). A narrative inquiry on self-reflection experience focused on female college students with brain education experiences. *Journal of Brain Education*, 11, 1-20.
- Jeong, W. S., & Lee, H. C. (2013). A Narrative inquiry into beginning teachers' life and physical education in the rural small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7(4), 77-95.
- Jo, S. H. (2004). School experience of student teachers in the secondary schools for four week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2(1), 201-224.
- Jung, H. H. (2013). A study on student teachers' perception of academic adviser in pre-service internship course.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47(-), 77-114.
- Kang, H. Y. (2011)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experiences of teachers in an inclusive setting.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31(3), 151-177.
- Kang, K. J., & Lee, S. H. (2005). A narrative inquiry on 'Parent Education as a Childless Principal of an Academic'.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2(3), 1-29.
- Kang, Y. J., & Kwon, Y. H. (2013). A narrative inquiry on the adapation of beginning teacher in the child care center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Special Children Education*, 15(4), 465-490.
- Kim, B. C. (2005). A study on the meaning of student teaching of student- teachers in the secondary school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23(4), 49-76.
- Kim, B. M. (2011). Ethnographic Analysis on experience of the teaching culture of a secondary preliminary teacher. *Korean Society for the Politics of Education*, 18(2), 109-132.
- Kim, B. N., & Hwang, H. S. (2011). A narrative inquiry of the mother's experiences in raising gifted young children.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18(2), 151-175.
- Kim, C. W. (2011). Narrative inquiry on experience of culturally diverse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24(4), 1-21.
- Kim, D. H. (2012). In search of my life's hope: Narrative inquiry about the meaning of the life of a third-time repeater for the secondary school teacher selection test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Science*, 23(3), 598-620.
- Kim, D. K. (2011). Narrative inquiry in educational research. *The*

- Korea Society for Phenomenological and Hermeneutic Educational Practice*, 8(2), 53-72.
- Kim, J. H., & Choi, W. J. (2005). The meaning of action practitioner: Narrative inquiry of teacher researcher and professor researcher of their work.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2(2), 1-22.
- Kim, K. H. (2011). Narrative inquiry on sexuality, love, and marriage of college students-Based on journaling in cla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5(4), 51-71.
- Kim, N. R., Jeong, J. C., & Choi, S. J. (2009). Narrative inquiry of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on career education exper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2(3), 137-159.
- Kim, S. H. (2012). A process of teaching professional socialization through the practicum in stages of elementary student teacher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0(3), 271-294.
- Kim, W. J. (2012). A narrative inquiry on 'reflection-in-action' in the curriculum making process of pre-servic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9(2), 153-176.
- Kim, Y. C. (2006). *After Tyler: curriculum theorizing 1970s-2000s*. Seoul: Muneumsa.
- Kim, Y. C. (2010).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II-All that writing*. Seoul: Academy Press.
- Kwon, S. M., Jo, C. K. (2013). The self-narrative inquiry on student teacher's teaching practice. *The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52(1), 63-78.
- Lee, D. K., Lee, S. J., & Im, J. Y. (2013). Narrative inquiry on the research participation process experienced by research participa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6), 123-151.
- Lee, H. C. (2013). A narrative inquiry for dilemmas of church school teachers in Korea. *Korea Reformed Journal*, 28, 247-279.
- Lee, H. C., & Lee, C. M. (2012). A narrative inquiry on Diaspora' life and dilemmas of overseas Korean: Focused on Korean dream of Chinese-Korean.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6(2), 63-87.
- Lee, S. H., Park, S. Y., & Kim, S. W. (2013). A narrative analysis on the career experience of the people who made happenstance as opportunity.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4(1), 111-133.
- Lee, S. M. (2012). Listening to what early childhood pre-service teachers say about early childhood practicum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9(4), 179-200.
- Lee, T. J. (2006). *Practice experiences of elementary student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 Buk, Korea.
- Lim, B. W., & Gwon, H. S. (2012). A narrative inquiry on scuba diving instructors training cours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51(5), 527-535.
- MacIntyre, A. (1981). *After virtue: A study in moral theory*.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Ok, I. N. (2009). Narrative inquiry on practicum experience of Social Studies student teacher in a middle school.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41(1), 73-106.
- Park, H. J. (2011). Narrative in moral subject education: In the view of moral character building. *Journal of Moral Education*, 35, 189-209.
- Park, S. W. (2012). Journal writing as an ontological inquiry: A story of a pre-service teacher's identity shap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Anthropology*, 15(1), 1-15.
- Phillips, K. D., & Carr, K. (2006). *Becoming a teacher through action: Process, context, and self-study*. New York, N.Y: Routledge.
- Polkinghorne, D. (1988). *Narrative knowing and the human science*.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yu, H. O., & Lee, H. C. (2012). A Narrative inquiry on Indonesian foreign workers. *Multiculture & Peace Institute*, 23(3), 598-620.
- Shin, I. J., & Lee, J. S. (2011). A narrative inquiry of experience of the elderly's living with chronic disease in hospital-based home care services. *Journal of Home*

- Nursing*, 18(1), 20-31.
- Sim, Y. J. (2012). A narrative inquiry on employee counselors' experience of adaptation in a corporation: Focused on female counselors in large companie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4), 1819-1843.
- Webster, W., & Mertova, P. (2007). *Using narrative inquiry as a research method: An introduction to using critical event narrative analysis in research on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N.Y: Routledge.
- Yang, S. Y. (2013). Exploring the pre-service teachers' practical knowledge regarding science education appeared through the reflective journal writing during teaching practicum,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17(3), 177-200.
- Yeom, J. S. (1999). Understanding children's world through narrative inquiry: Based on the study of children's transition from kindergarten to grade on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nthropology*, 2(3), 57-82.
- Yeom, J. S. (2003). Narrative inquiry in educational research: The concept, procedure, and dilemma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nthropology*, 6(1), 119-140.
- Yeom, J. S. (2011). One educator's teaching practice aimed at the constructing a caring community in an early childhood multicultural classroom.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5), 87-108.
- Youn, H. S. (2013). A narrative inquiry on what a middle school girl student who was once 'Wangtta' at school gained while she worked as a manager of the school baseball club.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0(2), 159-176.

<국문요약>

교육실습은 산란(産卵) 직전의 알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사범대생에게 교사가 필수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존재로 부화될 것인가? 닭일까? 오리일까? 나는 55명의 교육실습생이 4주의 교육실습 기간에 교사로 존재 지향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탐구 방법에 따라 전개하였다. 절차는 현장 들어가기, 현장 텍스트 쓰기, 연구 텍스트 쓰기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교육실습생들은 현장에서 관찰한 것과 자극 받은 것 그리고 현장 교사 및 학생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주 별 저널을 써 나갔다. 교육실습 카페에서 이루어진 자유롭고 진정성 있는 이야기 220부가 현장 텍스트로 수집되었다. 그리고 연구 텍스트는 각 주별로 탐색, 성장, 반성, 다짐에 대한 시적글쓰기를 통하여 다시 살아내고 다시 이야기하며 내러티브 탐구를 기술해 나갔다. 가정교육과 교육실습생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교육실습생이 교사로서의 삶을 지향하며 부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 논문접수일자: 2013년 01월 13일, 논문심사일자: 2013년 02월 04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03월 28일